

入山後爾後 杜門不出을十年드대여 此山에서入寂하였다。그런데 諦觀禪師의 入宋에對한狀況을 佛祖統記(卷十)에照하여보면 다음과갓다。

吳越王遣使致書。以五十種寶。住高麗求之。其國令諦觀來奉教垂。而智論疏。仁王疏。華嚴骨目。五百門等。禁不令傳。且戒觀師。放中國求師問難。若不能答則奉教文以回。諦觀禪師既至。開螺溪善講授即往參謁。一見心服遂爲禮云々。

以上の略記를深照하여보면 諦觀禪師가 國命을바다 遠大한抱負로써 大陸支那에法을爲하여간몸이엇 만은 엇지高麗故國을 生覺지안이하엿스리오 佛法門中에圓融無碍하여 此土彼土가업고 一圓相即하지 만은 凡夫의愚眼으로볼때에는 故國을도타오지못한것이 遺憾일것이다。後裔우리를 古代先師신남에는 滅死奉佛爲法終身하였것만은 우리들은 此意를얼마나맞고잇스며 近日의우리의活動이어떠한가 反省할 必要가잇다。이것은 中間의回想으로 다시 諦觀禪師는 彼土에서 義寂禪師의 門下에列하여 天台教 觀의蘊奧를究明하기爲하여 螺溪止留十年一日에 坐寂하였는데 生年과入寂當時의俱狀은未詳하다。그런 데 天台四教儀는 諦觀禪師生前에는 著述의有無를不知하고잇섯는데 死後에後人이 此書發見하여 世 上에流布된것이다。이것을 傳記에照하여보면 嘗以所製四教儀藏放薩 人無知者。師留螺溪十年一日坐亡 後人見故薩放之、開視之唯此書而已 由是盛傳諸方 大爲初學發蒙之助云云。諦觀禪師는 義寂禪師로부러 傳하는 天台教和觀心の意를 八教大意에依하여證하고 其初薩底에秘藏되어잇던바 入寂하신後 放光의 奇瑞를보고 비로소 諦觀禪師가著述한 天台教學이 後世에出現하게되였다。그러면 이四教儀는 何意 를敘述한인가 이것을 想考하여보건대 佛陀의一大教意를 五 八教로 要約判釋한것이다。이것을 證 考하오면 謙案台教廣本鈔錄五 八教等云 又三大部等五時八教鈔錄(高麗沙門諦觀錄)云云。이諦觀禪師 에對한記錄을畚에 參考資料의不足과 時間이別로노히코지못한關係로 詳細한記錄을 보여드리지못한은 愧 未安을 늦기는바이오며 後日完成되어 機會를 엿사오면 다시곳치 供覽코저하나나다。

—「在東京」—

南 春 往 生 記

……南湖의小祥을當하야……

朴 允 進

나는 人類學者가 아니므로 사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것은몰으갓다。그러나 피오래엿겿것 만은 事實일것갓다。흔히들 말하기를 저어도 二十萬年前이엿겿것이라고한다。그러면 二十萬年前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만히 낳스며, 얼마나 만히 죽었는지 이것은 常識으로도 잘알수잇는일이다。이러케 사람이 만히났고, 만히죽었스니 사람난 것이 그다지 神奇스러운일이아니며, 사람이죽는것 이 그다지 異常한일은아니다。그때도 世上사람 들은 사람이나면 조와하고, 사람이죽으면 언짢 어한다。恒河의모래와갓치 만히「잇든」사람이 그 리하였스며 지금 「잇는」사람이 그리하고 無限 極數로 「잇을」사람이 또한 그럴것이다。이러케 사람이 낳는것을 깃부게생각하고 사람이죽는것 을 설어하지만은 그중에도 사람이죽는때에 悲

痛하는것이 사람날때의 깃비하는 程度의것은 아니다。웨그러나하면 千年鐵樹에는 꽃이되기쉬 워도 한번 이몸이 입서지면 永遠히 再生할수 없다는 經驗論이 이것은 立證하고잇는 까닭이 다。다시말하면 죽는것은 「힘」잇는사람이나 弱 하사람이나 또는 「돈」잇는이나 업는이나 다시 오지못하는길이 됨으로 사람이 죽은때에는 親戚 同志는 말할것도업고 미워하든사람 怨讎로 역이든 사람까지라도 한가지 죽는사람을 物상 히역이는것이다。그런데 新羅法學興王때에 朴厥觸 이 白乳를뿌리고갓지 一千四百年되든해 一月 一日에 爰敎者 朴鍾雲이 蓮華往生하였스니 朴 鍾雲의法號는 南湖다。南湖는 나의親한빛이요。 同時에 나를 判理解해주는사람중에 한사람이엇 다。南湖가 昨年느진가을에 金剛山神溪寺에서사

